■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57-587.
http://doi.org/10.17948/kcs.2023..99.557

네이버 별점 하위권 웹툰의 베스트 댓글 연구*

구자준(具滋俊)**

목 차

1. 들어가며: 웹서사의 댓글 게시판과 상호작용
2. 네이버의 별점 하위권 웹툰과 베스트 댓글
3. '베스트 댓글'의 성격과 수사적 특성
4. 〈돌아온 럭키짱〉: 작품 비판과 결합한 독자의 '댓글 놀이'
5. 〈공감.jpg〉와 〈돼지만화〉: 독자들의 비난과 '베스트 댓글 없애기'
6. 나가며

국문초록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이, 독자가 좌우로 화면을 전환하거나 상하로 스크롤을 내려가며 자신만의 속도로 작품을 읽어가는 웹서사에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읽기의 과정에 '댓글'이 끊임없이 관여한다는 점이다. 이때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독자의 댓글은 댓글 게시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며 웹서사 전반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한다. 다만 베스트 댓글은 작가와 독자 간의 생산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불화와 갈등 또한 유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갈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 중 하나가 네이버 별점 하위권 웹툰의 댓글 게시판이다. 연재 기간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작품이 많은 웹툰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화제성만 있다면 낮은 평가를 받는 작품의 댓글 게시판에도 독자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작가와 작품, 플랫폼에 대한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2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주최한 제7회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원고 「웹툰 독자의 규범적 인식과 혐오 발화 연구—네이버 별점 하위권 웹툰의 '베스트 댓글'을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청강문화산업대 강사.

다양한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하며 자신들의 의견과 감정을 베스트 댓글을 통해 표출한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네이버 별점 하위권 웹툰 10편의 베스트 댓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웹툰 독자가 형성하는 작가·서사·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표현과 인식을 검토하였다. 다른 웹툰·웹소설과 비교했을 때 별점 하위권 웹툰에서는 독자가 작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넘어, 비평의 기준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댓글 게시판 내외에서 공론을 형성하여 작품에 대해 개입하려는 시도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는 작가 혹은 플랫폼과 '정상적'인 소통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느낀 독자가, 자신들의 불평을 체계화하거나 작가를 향해 벌이는 사이버불링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별점 하위권 웹툰에서는 웹서사의 독자가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읽고 서사를 분석하는가, 그리고 작가와 플랫폼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독자의 비평 기준을 베스트 댓글이 말하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결국 '논리적인' 베스트 댓글은 다양한 유형의 조롱과 사이버 불링을 증폭시키는, 혐오의 정동을 정당화하는 기제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웹툰, 네이버 웹툰, 별점, 베스트 댓글, 댓글 게시판, 상호작용.

1. 들어가며: 웹서사의 댓글 게시판과 상호작용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이, 독자가 좌우로 화면을 전환하거나 상하로 스크롤을 내려가며 자신만의 속도로 작품을 읽어가는 웹서사에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읽기의 과정에 '댓글'이 끊임없이 관여한다는 점이다. 웹서사 플랫폼에 연재되는 장품들은 장편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매일 혹은 매주마다 일정한 분량의 연재분이 작품 게시판에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독자는 당일의 연재분을 확인하며 작가의 서사를 읽는 동시에, 회차마다 제공되는 댓글 게시판에도 매번 새롭게 참여할 수 있다. 독자가 댓글 게시판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적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작가를 호명하며 작품에 대한 특정한 메시지를 작가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시도하는 독자도 있고, 자신의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독자들에게 작가·작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구하는 독자 역시 존재한다. 댓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다른 독자의 댓글에 추천/비추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역시 가능하다.

물론 모든 독자가 댓글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앞의 독자들과는 달리 게시판의 댓글들을 참조하여 작품에 관한 이해를 넓힐 뿐 구체적인 의사 표현은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소란스러운 댓글 게시판이 조용히 글을 읽는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며 댓글창을 열지도 않는 독자 역시 존재할 것이다. 이런 독자들은 그 회차의 서사만 확인한 다음 댓글 게시판의 논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금세 빠져나갈지도 모른다.[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서사 플랫폼에서는 독자들이 서사의 더욱 많은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다. 네이버에서 컷툰을 고안하여 컷마다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만든 것,[2] 네이버가 인수한 영미권의 대표적인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wattpad)의 경우 문단마다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3]

그렇기에 서사와 댓글을 함께 확인하며 작품을 보는 것은 현재의 웹서사에서는 일상화된 '읽기'의 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웹서사의 기원과 탄생을 생각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웹툰과 웹소설은 기존의 출판 만화나 장르 소설 등을 온라인 공간의 웹 플랫폼에서 재매개하면서 탄생한 미디어이며, 그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 혹은 독자와 독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기성 미디어와 달리 웹툰과 웹소설에서는 작가와 독자 간의 다양한 대화가 훨씬 더

1) 웹소설의 경우 권당 결제와 같은 방식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역시 이와 함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컷툰은 2015년 네이버 웹툰에서 처음 도입한 웹툰 양식을 의미한다. 세로로 스크롤을 내려가며 읽어야 했던 기존 웹툰과 달리, 컷툰은 컷 하나하나를 좌우로 넘기면서 읽도록 그려졌다. 그렇기에 컷툰에서는 스크롤을 활용한 웹툰의 전통적인 연출 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대신 컷이 전환과정을 이용하여 특정한 효과들을 연출할 수 있으며, 각각의 컷을 SNS에 공유하거나 평가하기 용이하다. 특히 컷툰에서는 매컷마다 댓글 게시판이 별도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어떤 컷툰 한 회의 전체 컷수가 20컷이라면, 독자는 컷마다 제공되는 게시판 혹은 (컷별 작성 댓글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체 댓글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컷의 베스트 댓글들을 포함한 상위 15개의 베스트 댓글이 회차 마지막에 제공되는 전체 게시판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다. 현재는 카카오 웹툰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컷툰 형태의 웹툰을 찾을 수 있으나, 네이버 웹툰과 달리 한 컷 전체를 SNS에 공유하는 기능이나 컷별 댓글 게시판이 별도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3) 박민제, 「[팩플]네이버가 6000억 썼다, 문장마다 댓글 '신개념 웹소설'」, 『중앙일보』, 2021.5.14., https://v.daum.net/v/20210514050205670?f=m, (2023.03.31. 검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이 직접 스토리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게시판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사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끼며 작품에 깊은 애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웹서사 댓글의 특성 및 댓글을 통한 작가와 독자 간 상호작용 양상에 관해서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기숙은 웹툰 〈바리공주〉의 서사구조와 댓글 유형들을 분석하며 댓글들을 통한 독자의 비평과 참여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며,[4] 김건형은 일상툰 웹툰에서 댓글을 통한 소통을 바탕으로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수정 등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베스트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공동 독서'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한다,[5] 또한 김희원과 서인숙은 기성 미디어와는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웹소설 독자들의 참여적 특성에 주목하며,[6] 김경애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LDA)과 이용과 충족이론을 활용하여 로맨스 웹소설 독자의 특징을 논의한다.[7] 나아가 김준현은 장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서사의 전개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자를 '댓글 독자'로 명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8]

다만 댓글과 작가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일정한 긴장을 동반하기에, 독자의 비평에 작가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9] 그리고 종종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지는 경우, 이전까지의 창작과 소비 과정에서는 나타난 적이 드물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하기도 한다. 웹툰 작가를

4) 최기숙, 「Daum 웹툰 〈바리공주〉를 통해 본 고전 기반 웹툰 콘텐츠의 다층적 대화 양상 —서사구조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3, 대중서사학회, 2019.
5) 김건형, 「웹툰 플랫폼의 공동독서와 그 정치미학적 가능성」, 『대중서사연구』 22-3, 대중서사학회, 2016.
6) 김희원, 「웹소설에 나타나는 독자참여 연구: 웹소설에 영향을 끼치는 독자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20; 서인숙, 「인터넷 소설의 독자 댓글 연구」,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7) 김경애, 「한국 웹소설 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7,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8) 김준현, 「웹소설의 댓글과 독자 주체성의 문제」, 『국제어문』 91, 국제어문학회, 2021.
9) 예컨대 김건형 역시 일상툰 작가가 작품에 대한 댓글의 지적을 수용한 사례와 거부한 사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김건형, 앞의 글, 2016. 또한 〈아기 낳는 만화〉와 같은 일상툰의 댓글에서는 다수의 입장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혐오 발화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간략히 언급하기도 한다. 김건형, 「일상툰의 서사 문법과 자기 재현이라는 전략—여성 일상툰의 정치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3, 대중서사학회, 2018, 153면.

향한 사이버불링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조경숙은 웹툰의 댓글에서 독자들의 비판이 작가 개인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검토하며, 댓글을 통한 소통의 긍정적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성과와 가능성 이상으로 댓글을 통한 혐오 발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조경숙의 논의는 플랫폼의 방치 하에서 익명의 다수가 작가를 향해 사이버불링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웹툰계의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10]

흥미로운 점은 웹툰·웹소설 댓글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두 서사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양상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비해, 댓글 게시판의 '심각한' 갈등 및 사이버불링의 문제는 웹소설보다는 웹툰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웹툰의 연재 방식 및 장르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웹소설에서 사이버불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웹툰의 사이버불링이 지금까지 더 가시적이고 공공연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 무료 공개분 이후 편당 유료 결제가 일상화된 웹소설과 달리, 포탈 사이트의 무료 연재가 일반화된 웹툰에서는 장르 및 작품의 특성 등에 따라 연재 기간 내내 대부분의 회차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웹소설에서는 작품에 비판적인 독자라 하더라도 유료 결제분까지 굳이 계속 읽는 일이 드문 것에 비해, 웹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독자가 지속적으로 작품에 대한 비난·비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작가 본인과 작품 속 주인공 캐릭터가 손쉽게 동일시되는 일상툰 장르 웹툰의 경우, 작품과 작품 속 인물에 대한 비판은 손쉽게 작가 본인을 향한 공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도 하다.[11]

그렇다면 웹툰 작품의 댓글 게시판에 참여하여 작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댓글 독자'들이 작가·작품을 비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독자들은

10) 조경숙, 「댓글: 소통이라는 허상과 웹툰계 사이버불링」, 『황해문화』 107, 새얼문화재단, 2020.
11) 조경숙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와 다음(현 카카오) 웹툰에서 발생한 댓글 관련 주요 논란 20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목록은 작가 SNS에서 생긴 논란이 작품의 댓글 게시판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8건), 일상툰에서 특히 사이버불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6건). 같은 글, 276-278면. 이처럼 SNS상의 논란이 손쉽게 작품 댓글 게시판으로 확장되고 무료 연재가 일반적인 일상툰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콘텐츠 접근성(결제 방식) 역시 사이버불링과 일정 부분 관련을 맺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수사를 동원하고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가. 나아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의 상호 작용 양상이 웹툰의 작가 및 독자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네이버 웹툰 중 '별점 하위권' 웹툰의 베스트 댓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별점 하위권 웹툰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비판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비난·비판이 종종 심각한 사이버불링으로 발전하는 양상도 발견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작가나 작품에 대한 비판이 사이버불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웹툰(나아가 웹서사 전반)에 관한 독자들의 '규범적' 인식 또한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작가·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독자 반응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웹툰 작가와 작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댓글로 서술되는 것이다.[12]

물론 특별한 내용을 담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이루어지는 댓글이 게시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당수의 독자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작품에 대한 일종의 '비평'을 시도한다. 서사의 개연성이나 작화의 수준, 작가의 데뷔 과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자기 나름의 미학적/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댓글을 달고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출하는 다른 댓글을 추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스트 댓글' 등을 통해 해당 작품의 댓글 게시판 내에서 일종의 합의가 일단 형성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혹은 작가와 플랫폼이 응답할 때까지) 자신들의 요구 사항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하며 거듭 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댓글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작가를 향한 사이버불링은 작품 내외의 정황에 대한 비판과 뒤섞여 독자 스스로가 느끼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별점이 낮은 웹툰의 '베스트 댓글'은 웹툰 독자들의 비난이 어떤 인식과 윤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집단 활동이 때로는 어떻게 사이버불링까지 이어지는가를 명료한 형태로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12) 이는 작가·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경우 작품 자체에 대한 참여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네이버의 별점 하위권 웹툰과 베스트 댓글

네이버 웹툰은 독자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많은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는 웹툰 플랫폼이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특정한 대표작을 제외하면 댓글을 통한 활발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네이버 웹툰에서는 부정적으로 화제가 된 작품에도 계속해서 많은 댓글이 게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네이버 웹툰이 가장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댓글을 통한 독자의 참여를 꾸준히 유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별점 하위권 웹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다.[13]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별점 하위권 웹툰의 베스트 댓글이다. 댓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양상 및 독자와 작가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전반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베스트 댓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댓글 게시판 내 공론의 형성 및 비평의 정교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는 댓글 게시판에서 베스트 댓글이 수행하는 역할에 더 주목하고자 했다.

댓글 중에서도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댓글은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어 댓글 게시판에 우선적으로 노출된다.[1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베스트 댓글은 독자들에게 일반 댓글 이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감상과 비평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5] 그렇기에 최근에는 웹서사의 베스트 댓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앞서 언급한

13)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 완결 웹툰란에 있는 전체 작품을 별점 순으로 정렬하여 별점이 낮은 웹툰들을 확인하였다.

14) 네이버에는 "특정 회차에 달린 전체 댓글 중 '좋아요 수'가 가장 높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며, "단 '좋아요 수'가 높더라도 '싫어요 수'의 비율이 높은 댓글은 BEST댓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https://help.naver.com/service/5635/contents/19062?lang=ko (접속일: 2022.7.21.)

15) 문광수・김슬・오세진은 베스트 댓글의 특성과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베스트 댓글은 다른 일반 댓글들 보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베스트 댓글은 댓글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사용자들의 주의(attention)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가 읽어 볼 가능성이 더 높다." 문광수・김슬・오세진, 「베스트 댓글의 방향성이 일반 댓글의 동조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한국콘텐츠학회, 2013, 203면.

김건형의 논의와 더불어 컷툰의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컷툰 내의 세부적인 장르에 따라 댓글이 활성화되는 양상이나 베스트 댓글의 내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을 검토한 오유선과 조재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16]

다만 지금까지 베스트 댓글이 내세우는 비평의 논리와 전제들, 작품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들이 상세히 논의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김건형이 베스트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동독서의 정치미학적 장면"을 탁월하게 포착한 바 있으나, 이는 일상툰이라는 특정한 장르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활발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되는 것이며, 베스트 댓글 '되기'와 '만들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독자 활동의 측면까지 충분히 부각되지는 못했다.[17]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베스트 댓글의 내용과 논리에 주목하여 독자들이 보여주는 웹툰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인식,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대한 기대와 불만, 자신의 기대에 미달하는 작품·작가를 향한 비판과 조롱을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시도했다. 즉 베스트 댓글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댓글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 상세히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들, 독자들은 어떤 기준을 통해 작품들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나아가 작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자신들의 비난 혹은 인신 공격을 어떤 논리를 통해 정당화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독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정교화하며 간접적으로 표출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작가와 플랫폼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무질서할 수 있는 댓글들 속에서 연속적인 흐름과 공론을 만들어내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으로 독자들의 댓글이 활발히 게재되는 '네이버 웹툰'의 완결 웹툰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네이버 완결 웹툰 중 별점 하위권에 위치한 순서대로 10개 웹툰의 베스트 댓글을

16) 오유선·조재희, 「컷툰의 장르에 따른 컷의 구성요소와 베스트 댓글 내용분석: 네이버 웹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2.

17) 김건형은 자신의 글에서 27번 각주를 통해 "본고의 목표는 댓글 전체의 계량적 연구가 아니라 공동독서의 정치미학적 장면을 포착하는 데 있으므로 독자 추천수 기준 15위 이상의 베댓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작가와 독자 간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까지 분석의 대상을 확장하고자 한다. 김건형, 앞의 글, 2016, 133면.

연구 개시일인 2022년 7월 17일에 동시 수집한 다음 이를 정리・분류하여 논의하였다. 다만 하위권에 위치한 웹툰 중에서는 홍보・이벤트 웹툰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웹툰은 제외했다. 2022년 7월 17일 기준으로 선정된 10개 작품은 〈돌아온 럭키짱〉, 〈공감.jpg〉, 〈돼지 만화〉, 〈유비님께 투자하겠어〉, 〈이웃집의 훈훈한 스토커군〉, 〈신림/남/22〉, 〈언플래시 레슨〉, 〈심연의 하늘 시즌4〉, 〈줄라이 블루〉, 〈비스타〉이다. (〈표 1〉 참조)

〈표 1〉 베스트 댓글 분석 대상

	작가(글/그림)	작품명	전체 회차	네이버 연재일	비고
1	김성모	돌아온 럭키짱	312	2012.3.7. -2018.2.20.	
2	임총	공감.jpg	108	2016.10.17. -2017.10.27.	'공감' 소재 활용
3	돼지작가	돼지만화	100	2019.5.15. -2022.6.30.	컷툰 /일상툰
4	B급달궁/이유정, 사방팔빵	유비님께 투자하겠어	70	2020.11.15.	타 플랫폼 연재작
5	teamGOGI+	이웃집의 훈훈한 스토커군	64	2020.11.09.	타 플랫폼 연재작
6	박태준 만화회사/jaw	신림/남/22	59	2021.11.19. -2022.5.10.	컷툰
7	현	언플래시 레슨	33	2021.1.1. -2021.8.6.	
8	윤인완/김선희	심연의 하늘 시즌4	27	2016.6.6. -2016.12.05.	
9	심건우	줄라이 블루	50	2021.5.31.	타 플랫폼 연재작
10	유마	비스타	39	2020.04.21. -2021.1.12.	

회차별 베스트 댓글은 최대 15개까지 선정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베스트댓글 평균 수가 15개에 가까울수록 많은 독자들이 댓글 게시판의 논의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베스트 댓글의 전체 개수나 평균 개수가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는 없는데, 이는 베스트 댓글의 수는 많더라도 개별 댓글들에 대한 추천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재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독자의 참여가 줄어 후반부의 베스트 댓글은 거의 사라진 웹툰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독자의 참여는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자들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베스트 댓글이 줄어든 경우도 존재한다.[18] 그러므로 독자 참여 양상은 베스트 댓글의 총 개수・댓글 당 추천 수・회차 별 베스트 댓글 개수의 추이・댓글 게시판에 나타난 독자의 인위적 개입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독자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었다고 판단된 〈줄라이 블루〉, 〈언플래시 레슨〉, 〈유비님께 투자하겠어〉, 〈이웃의 훈훈한 스토커군〉, 〈비스타〉의 경우, 댓글의 내용과 흐름을 상세히 분석하는 대신 베스트 댓글의 전반적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성만 간략히 논의하였다(〈표 2〉 참조). 컷툰 역시 한 회차 전체에서 선정된 베스트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돌아온 럭키짱〉의 경우 전체 회차가 312화에 달하고 베스트 댓글 수도 상당한 것에 비해,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이 분명해진 100화 이후에는 유사한 양상의 베스트 댓글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00화까지의 베스트 댓글만 수집하였으며 100화 이후의 베스트 댓글 등을 참고하는 경우 별도로 댓글 확인일을 기재하였다.

〈표 2〉 분석 회차 및 베스트 댓글 개수

	작품명	평균 별점	수집 회차	베스트 댓글 개수	회차별 평균 개수
1	〈돌아온 럭키짱〉	3.81	100	1,491	14.91
2	〈공감.jpg〉	4.45	108	1,163	10.77
3	〈돼지만화〉	4.55	100	1,060	10.60
4	〈유비님께 투자하겠어〉	4.95	70	328	4.69
5	〈이웃집의 훈훈한 스토커군〉	5.09	64	490	7.66
6	〈신림/남/22〉	5.53	59	885	15.00
7	〈언플래시 레슨〉	6.32	33	400	12.12
8	〈심연의 하늘 시즌 4〉	7.03	27	405	15.00
9	〈줄라이 블루〉	7.04	50	104	2.08
10	〈비스타〉	7.07	39	491	12.59

구체적인 댓글 내용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댓글들이 웹툰

18) 〈돼지만화〉와 〈공감.jpg〉가 이에 해당한다. 두 웹툰에서 이루어진 '베스트 댓글 없애기 운동' 등에 관해서는 4장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라는 미디어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대한 당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작품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댓글과 작품과 작가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에 집중하는 댓글을 구분하여 살핌으로써, 규범적 인식에 대한 천명이 점차 작가와 작품에 대한 희화화와 조롱으로 변모·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나는가도 함께 분석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는 베스트 댓글이 주도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논의하되, 희화화에 집중하는 댓글들의 개별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댓글들은 작품의 특정한 장면에 관한 지엽적인 묘사나 당시 유통되는 밈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판을 수행하기보다는 조롱과 경멸의 감정을 순환하는데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롱의 형식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에도, 댓글의 세세한 내용을 모두 옮기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반면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핀 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비평을 제공하고자 시도하는 베스트 댓글들이다. 이러한 베스트 댓글에서는 작가와 작품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논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적'인 베스트 댓글들이 작품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에 집중하는 유희적인 베스트 댓글에 일종의 이론적·윤리적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댓글들은 정중한 어조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적나라하게 수행되는 비판과 공모하여 작품에 대한 조롱을 강화한다.[19]

19) 이후 개별 댓글을 분석할 때는 댓글 내용과 함께 작성자 닉네임, 작성일시, 추천 수, 비추천 수를 함께 기재하되, 2022년 7월 17일 이후 추가로 확인한 댓글의 경우 댓글 확인일도 함께 표기했다. 별도의 닉네임이 없는 유저의 경우 일부 복자 처리된 아이디를 기재하였다. 또한 베스트 댓글이 지나치게 길어 모두 소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댓글 내용의 일부만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생략하였음을 밝혔다.

3. ‘베스트 댓글’의 성격과 수사적 특성

선정한 작품 중 〈유비님께 투자하겠어〉와 〈이웃집의 훈훈한 스토커군〉, 〈줄라이 블루〉는 네이버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먼저 연재된 다음 완결 웹툰란에 새롭게 올라온 작품이다. 무료 공개된 초반 회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차는 유료 혹은 24시간마다 1회씩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독자 반응도 대부분 초반 회차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후 회차부터는 전체 댓글 수와 베스트 댓글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작품이 완결된 후에 네이버에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무료 회차에서 베스트 댓글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공유된 다음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구독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웹툰들에서는 후반부 연재분의 베스트 댓글의 내용보다도 베스트 댓글의 수가 줄어든 현상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웃의 훈훈한 스토커군〉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의 초반부에서는 스토킹이라는 범죄 현상을 로맨스와 연결짓는 작품의 서사에 대한 불만, 이와 같은 작품을 완결 웹툰란에 업로드하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상당수의 독자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료 회차에서도 범죄를 미화하는 서사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지만, 동시에 서사에 몰입하는 일부 독자들의 호의적인(서사에 흥미를 표현하는) 댓글이 크게 줄어든 추천수를 바탕으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기도 했다. 초반부 설정의 비현실성과 인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집중적으로 지적 받은 〈유비님께 투자하겠어〉와 같은 웹툰에서도 중후반부로 갈수록 베스트 댓글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내용적으로는 삼국지의 익숙한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언급하거나 반기는 댓글들이 소수의 추천을 바탕으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다. 마찬가지로 댓글 자체가 거의 없었던 〈줄라이 블루〉와 같은 작품에서도 독자의 적은 참여를 아쉬워하며 ‘베댓’이 없음을 한탄하는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이 되기도 했다.[20] 이는 유료화라는 현상이 독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비평을 막는 장벽이

20) 〈줄라이 블루〉 16화에는 "우와 베댓이 없어" (seo, 2021.06.25.16:30:37, 추천:5, 비추천:0)라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작품에 대한 과도하고 지속적인 비판을 막는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암시한다.

물론 매주 네이버에서 연재된 다음 완결 웹툰란으로 옮겨진 작품들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21] 〈심연의 하늘 시즌4〉의 경우 이미 기존 시즌을 읽는 독자들이 다수 존재했었기에, 이전 시즌의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는 서사의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이 1화부터 제기되었다.[22] 빠르게 독자들이 이탈한 다른 웹툰과 달리, 기존 시즌에서 넘어온 독자들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 게시판에 참여한다. 그렇기에 작품에 대한 불만 역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판이 갈수록 정교화되는 동시에 서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음식 레시피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서사 전개와 응답이 없는 작가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컨대 7화에서는 "카레우동 만드는법"과 "베이컨 김치찌개 레시피", "식혜 만드는법"이 동시에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작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는 베스트 댓글도 지속적으로 게시되는데, 3회의 다음과 같은 베스트 댓글들이 대표적이다.[23]

감상만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다.

21) 다만 연재 당시에도 독자들의 호응이 매우 적은 편이었던 〈언플래시 레슨〉이나 〈비스타〉와 같은 작품들의 베스트 댓글은 타 플랫폼 연재 후 네이버 완결 웹툰으로 옮겨진 작품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웹툰에서는 중반 이후 높은 빈도로 5-10개 정도의 베스트 댓글만이 달렸다.

22) 서사의 불친절함을 지적하는 1화의 베스트 댓글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고./저 남자는 누구고/이 카니발이라는 주제는 뭐고/대구에 떨어뜨린 미사일은 어떻게됐으며/저 마지막 빨간애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테러리스트 민정우는 지하.지상에서 주인공들을 제일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죽을뻔한 위기를 많이 넘겨주었죠." (남다현, 2016.06.13. 23:13, 추천:27612, 비추천:646), "먼내용인지 이해가 안된다.." (하하하하하, 2016.06.13. 23:08, 추천:20439, 비추천:686)

23) 2화에서도 작가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들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전 시즌 간략한 내용정리와 휴재에 대한 개인적인 사장을 토로하는 해명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이어나가려는지, 또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해야 할 자료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담은 정리글. 쓰는 게 좋으실 듯. 그런 정리글을 쓰는 게 작품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이라도 미칩니까? (…)" (Afterglow, 2016.06.21. 21:56, 추천:1441, 비추천:92)

지우 (2016.6.27. 23:34, 추천:11304, 비추천:981)

이게 왜 욕을 먹느냐.
- 시즌 넘어오면서 내용을 확 전환시켜 버렸는데 이전 시즌을 유료 화 시켜버려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음. 그렇다고 해서 전에 무슨 내용이 전개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님.
- '테러맨' 이란 웹툰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하던데, 아무런 언급도 없어서 독자들은 "얘는 왜 또 누구지?"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음. 테러맨에도 자기네 웹툰이 심연의 하늘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1화 맨 끝에 영어로만 적어놓음.
- 이것보다 잔혹성이 약한 '방과후 전쟁활동'도 19금이 됐는데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웹툰이 전체관람가로 풀려있음. 네이버의 잘못도 있지만 전체 공개 웹툰에 이런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계속 넣는 작가의 마인드도 의문임.

유경자 (2016.06.28. 04:18:59, 추천:2225, 비추천:262)

지금 비난하는 독자들은 작가의 작품성에 비난하기보단 작가의 태도가 불만인거다 ㅋㅋ
잣대를 높게 잡아서
직업정신이니뭐니 운운할 가치는 없지만
어쨌든 독자들의 신뢰와 소통을바탕으로하는
댓글창이있는 웹툰이다

생각이있고 개념과 양심이있다면
독자들이 이렇게까지 뭐라하면 되돌아보기라도 한다
작가가 독자들을 무시하는태도에 독자는
화가났고 그런데다가 연재도 똑바로 하지않으니
직업정신을 운운할수밖에 없고
사소한 불만까지 말하게된거다 (…)

이러한 베스트 댓글들은 이전 시즌의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는 전개의 난해함으로 인해 촉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지점을 문제로 삼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에 무슨 내용이 전개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닌 작가의

태도야말로 가장 문제적인 것이 된다. 전체관람가에 맞지 않는 지나친 폭력성에 대한 지적이나, 〈테러맨〉등의 웹툰과 연결되며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의 부재와 같은 문제는 작가의 무응답에 비하면 부차적인, "독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분노로 인해 "사소한 불만"까지 털어놓으면서 그저 함께 언급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후에도 작가가 "작가의 말" 혹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작품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연의 하늘 시즌4〉의 댓글 게시판에서는 작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베스트 댓글뿐만 아니라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작가에 대한 호소가 번갈아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오랜 시간 서사를 읽은 독자들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가가 서사를 수정하거나 설명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24] 그렇기에 시즌 내내 지속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의 난해한 줄거리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이루어진 21화가 연재된 이후 독자들의 불만은 빠르게 해소되었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1화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총정리'를 반가워하는 댓글들이 베스트댓글로 선정되었다.[25]

또한 무료 웹툰의 경우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흥미와 화제성이 있다면 작품을 계속해서 읽는 경우도 나타난다. 예컨대 〈신림/남/22〉의 댓글 게시판에서는 초반부터 자극적인 소재와 잔혹한 묘사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박태준 만화회사'와 네이버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하게 발화되었다. 일진이나 폭력과 관련된 자극적인 소재를 반복 재생산하는 최근 웹툰 플랫폼과 작가의 경향과

24) 9화에 게시된 다음과 같은 베스트 댓글이 대표적이다. "산으로 가는 거 같이 보이는 지금 스토리가 언젠가 무릎을 탁 치며 감상하게 될 작가님의 큰 그림일 것을 믿고 있습니다." (zhfp****, 2016.08.09. 00:18, 추천:2347, 비추천:260)

25) "하도 기억안난다 안난다 하니까 총정리해주셨네" (바린, 2016.10.31. 23:07, 추천:14955, 비추천:146), "총정리 OK" (사장님의 긴급호출, 2016.10.31. 23:08, 추천:11547, 비추천:128)

작가에 대한 불만이 중점적으로 토로되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독자들은 여전히 작품을 구독하고 비평에 참여했으며, 이후 베스트 댓글에서는 작품에 대한 계속되는 비판과 더불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의 서사에 대한 '실망' 혹은 이제는 유료 선공개분을 읽지 말자는 '다짐'이 등장하기도 한다. 22화에서는 작품의 분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을 불평하는 댓글이 1929명의 추천을 받아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베스트 댓글이 되었으며, 23회에서는 "나 자신 이제 쿠키쓰지말자..."고 다짐하는 댓글이 538회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다.[26]

물론 단지 작품이 개선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주에는 어떤 '재밌는' 댓글들이 달렸는가를 확인하고 즐기기 위해서 글을 읽는 경우도 생겨났다. 예컨대 〈공감.jpg〉의 30화에서는 "베댓이 더 재미있당"라는 댓글이 4065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32화에서는 "이건 만화보다 댓글이 더꿀잼이다 ㅇㅈ?"이라는 댓글이 16364회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댓글이 되기도 했다.[27] 독자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웹툰에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희화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작품의 서사적 전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독자들끼리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양상이 일상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돌아온 럭키짱〉과 〈공감.jpg〉, 그리고 〈돼지만화〉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연재된 김성모의 〈돌아온 럭키짱〉에서 이와 같은 작품에 부정적인 독자들의 댓글 놀이가 활성화된다면, 〈공감.jpg〉와 〈돼지만화〉에서는 작품에 대한 비난·비판이 댓글 놀이와 결합되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무시·혐오를 유희적으로 표출하는 양상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

26) "분량 진짜 좀 심한거 아닙니까? 뭔 슬금 슬금이 끝임? 일주일 동안 이거 그리시느라 힘든건 알겠는데요... 독자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polrapo, 2022.01.19. 22:45, 추천:1929, 비추천:30), "나자신 이제 쿠키쓰지말자..." (shin****, 2022.01.21. 22:58, 추천:538, 비추천:16)

27) "베댓이 더 재미있다" (najo****, 2017.01.27 23:28, 추천:4065, 비추천:563), "이건 만화보다 댓글이 더꿀잼이다 ㅇㅈ?" (아라치, 2017.02.03 23:28, 추천:16364, 비추천:1460).

4. 〈돌아온 럭키짱〉: 작품 비판과 결합한 독자의 '댓글 놀이'

사실 〈돌아온 럭키짱〉은 독자들의 열광적인 기대와 호응을 받으며 연재를 시작한 작품이기도 하다. 물론 작품의 초반부터 등장인물들은 조리에 맞지 않는 대사와 행동들을 반복했으나, 이는 오랜 시간 활동하며 독특한 명성을 쌓은 김성모 작가 특유의 개성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김성모의 출판 만화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의도된 것인지 불분명한) 독특하고 어색한 대사와 작화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새롭게 발굴되어 밈화되면서, 다소 일상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었던 김성모의 유머나 스타일에 호의적인 독자가 늘어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유행하던 병맛 코드의 '원조'와 같이 여겨지던 그가 처음으로 웹툰 연재에 도전한다는 사실은 밈에 친근한 독자들의 열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만화가 그 전설의 대사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의 만화인가요 ㅋ"[28] 와 같은 1화의 댓글은 연재 시작 당시 호의적이었던 독자의 반응들을 보여준다. 다만 1화에는 호의적인 댓글뿐만 아니라 부정적・비판적인 댓글도 함께 베스트 댓글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는 연재가 점차 진행되는 동안 독자의 반응이 나빠지면서, 작품에 대한 평가가 바뀐 독자들이 새로 유입된 독자들에게 안내・경고 역할의 댓글을 1화에 새롭게 게시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독자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유입되고 정렬 순서에 따라 상단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 있는 1화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 연재된 작품의 1화는 종종 이후 연재분까지 포함하는 작품 전체에 대한 평가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1화에 게시된 다른 베스트 댓글들은 〈돌아온 럭키짱〉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준다.

맛동산 (2015.09.02. 21:32, 추천:35913, 비추천:1874)

〈럭키짱 초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럭키짱에 입대한 제군들을 환영한다. 아래와 같은 독자수칙을 숙지하여 즐거운 럭키짱 활동을 하기 바란다. 하나 별점(벌점)은 항상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둘, 노약자, 영유아, 임산부 분들은 뒤로 가기를 권장

28) (Takesia, 2013.05.15 07:04, 추천:27054, 비추천:1077)

> 한다. 셋, 럭키짱은 본문이 아닌 댓글을 읽는 작품이다. 넷, 작가나 작품을 비방하는 댓글은 대부분 베댓이 된다. 다섯, 럭키짱은 당분간 연재종료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끝으로 오늘도 원칙에 따라 1점 누르고 간다. 이상.

〈돌아온 럭키짱〉 1화 댓글 게시판에 올라온 이 댓글은 작품 연재가 시작된지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게시되었음에도 1화의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댓글 게시판 최상단에 노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재된 지 오래된 화의 댓글 게시판에는 새로운 베스트 댓글이 등록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며, 간혹 베스트 댓글이 탄생하더라도 약간의 추천만 받아 베스트 댓글 최하단에 게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1화의 경우 신규 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독자 역시 수시로 참여하며 막 작품을 읽기 시작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에[29] 상대적으로 베스트 댓글의 교체 또한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특히 〈돌아온 럭키짱〉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독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작품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가장 최다 추천 댓글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럭키짱은 본문이 아닌 댓글을 읽는 작품"이며 "작가나 작품을 비방하는 댓글은 대부분 베댓"이 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의 댓글은 댓글을 통한 독자들의 비판 혹은 비방이 작품 게시판에서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잡았음을 드러낸다. 물론 중요한 것은 댓글 놀이 자체라기보다는, 작품을 희화화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 놀이가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맛동산'의 베스트 댓글은 별점 1점과 작품 댓글 놀이에 집중하는 '즐거운 럭키짱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어느 시점부터 〈돌아온 럭키짱〉의 독자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서사를 무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댓글 놀이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던 셈이다.

전체 별점이 낮아지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댓글 반응을 통해 추측했을 때 별점은 35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30] 37화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유사한 컷들의 '재활용'이 본격적으로

---

29) 이와 같은 댓글은 종종 스스로를 '선발대'로 표현하기도 한다.

30) 35화에서는 "별점 왜이래"(비밀, 2013.10.17. 21:39, 추천:179, 비추천:24)라는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다시 읽는 독자들이 이때부터 별점이 깎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시되는 동시에 서사보다 차라리 댓글이 재밌다는 인식 또한 출현하고 있다.[31] 다만 이 시점까지는 여전히 작품을 '병맛' 코드로 수용하고 즐기는 독자들이 많았으며, 웹툰 작가 이말년을 패러디한 계말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만화는 개그만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읽으면 된다'는 반응이 등장하기도 했다.[32] 하지만 설정 모순과 관습적인 전개가 반복되면서 독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댓글을 통한 조롱이나 비판 역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33] 독자들의 불만을 인식한 작가는 63화에서 스토리의 설정 모순을 사과하는 글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게재했다.



〈그림 1〉 〈돌아온 럭키짱〉 63화 사과문

이후 64회의 연재분이 평소의 두 배 분량으로 연재되자 독재들은 제한적

31) "만화보다 댓글이 더 잼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클릭 ㅋㅋㅋㅋ" (카란디루, 2013.07.10. 14:29, 추천:5115, 비추천:296), "여학생들 저번화에 '얼굴도 멋진거같아' 그아이들 ㅋㅋ카피앤페이스트 하셨네용 (pian****, 2013.07.16. 18:37, 추천:1159, 비추천:41)

32) "이 만화 개그만화인걸로."(보라빛소년, 2013.06.27. 13:51, 추천:1002, 비추천:31), "솔직히 장르 좀 긴가 민가 했었는데 이번화로 확실해짐" (kiss****, 2013.08.06. 10:31, 추천:960, 비추천:21)

33) 예컨대 61화에서는 비슷한 패턴의 싸움이 반복되는 것을 지겨워한 독자가 남긴 다음과 같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된다. "또 세달은 싸우겠네__" (레인트, 2013.05.11. 12:27, 추천:739, 비추천:45) 또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언급되었던 등장인물 전사독의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 장애인으로 등장하자, 이를 비꼬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사독의 부친중 한명은죽고 한명은장애인임" (고똥팔이, 2013.04.29. 22:22, 추천: 2288, 비추천:81)

이나마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34] 하지만 작품에 대한 불만은 이후 금세 증가했는데, 이는 애초에 작가의 사과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이미지의 성의없는 '복붙(복사하여 붙여넣기)', 서사적 전개의 단조로움, 개연성 없는 인물 성격의 갑작스러운 변화, 설정 모순 등에 관해 복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으나, 작가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설정 모순의 문제에 대해서만 '추후' 단행본에서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화 분량만을 두 배 늘리는 것만을 보상으로 제시했다. 분량 자체도 다른 웹툰보다 짧다는 아쉬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황이었기에,[35] 단지 64화만 두 배 분량이 되었다고 해서 독자의 불만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려웠다.

이는 출판 만화 연재경력은 충분하나 웹툰은 처음 시도했던 작가가 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웹 연재의 특성상 출판 만화에 비해 이미지의 교체가 용이하기에 이미 연재된 화의 내용의 수정도 종종 이루어진다. 단행본 출판을 수정 시점으로 삼는 것은 웹툰보다는 기존의 잡지만화 연재의 관행에 가깝다. 작가가 플랫폼이 제시하는 '작가의 말'을 활용하는 대신 웹툰 하단에 별도의 칸을 덧붙여 자신의 사과를 게재한 것 역시, 웹툰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작가와 독자 간 상호작용에 익숙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기에 김성모 만화의 익숙한 요소들을 발견하여 즐기던 댓글 '놀이'는 점차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희화화로 변모한다. 초반까지는 댓글들이 서사의 병맛 요소를 변형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면,[36] 후반으로

34) "담주에 세배 분량 원하면 좋아요 ㄱㄱ" (dkfk****, 2013.05.21. 23:06, 추천:7521, 비추천:318), "따블분량.감사합니다!" (아사달제1연대, 2013.05.21. 23:02, 추천:3618, 비추천:184)

35) 분량에 대한 아쉬움은 27화와 39화의 베스트 댓글에서 나타난다. "분량따윈 생략한다." (쁘이, 2012.09.19. 01:28, 추천:1606, 비추천:56), "내용과분량은졌다. 그러나 댓글을 얻었다." kimmingun001127, 2013.08.09. 21:50, 추천:560, 비추천:21)

36) 예컨대 27화의 경우 엄격한 학생 주임 전병길이 학생들 간의 서열을 결정하는 싸움을 허락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학생주임의 진지한 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은 독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유머러스하게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다. "전병길씨는학교폭력방관죄로교내봉사40시간을선고받음" (ㅋㅋㅋㅋ, 2013.06.21. 20:22, 추천:754, 비추천:20)

갈수록 댓글을 통한 유희는 작품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집중되었다. 94화가 대표적인 회차이다. 이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댓글이 작품에 대한 비판과 조롱으로 채워진다. 느린 전개와 짧은 분량 및 지겹게 반복되는 클리셰를 비꼬는 아래의 댓글처럼, 이전과 비슷한 유형의 유머를 활용하면서도 작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 것이다.

> sksm**** (2013.12.18. 00:24, 추천:6397, 비추천:289)
>
> 다음주 예고..... 건마 계속 처맞음
> 다다음주 예고..... 풍호 나서서 대치함
> 다다다음주 예고..... 풍호 떡발리고 지대호 나섬
> 다다다다음주 예고.... 지대호 발리고 건마 일어남
> 다다다다다음주 예고..... 건마 뭔가 달라짐
> 다다다다다다음주 예고..... 정불주 맞기시작
> 다다다다다다다음주 예고..... 건마 이기고 아무일없다는듯이 다시 스토리 전개

또한 작가의 수입에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금기시되고 삭제되기도 하는 유료분 미리보기 회차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와 함께 이후 회차도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보지 말라는 '충고'를 건네거나, 〈돌아온 럭키짱〉을 포기하고 다른 요일 웹툰을 보러 가자고 '권유'하는 베스트 댓글들도 함께 게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가의 '응답'을 받지 못한 독자들은 점점 더 비판보다도 조롱 자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며, 마침내 139화에서는 서사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포켓몬스터〉 주제곡 가사, 육군 복무 신조, 짜장면의 유래, 영어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 콩나물국 레시피, 애국가 가사, 사회면 기사 내용, 청산별곡 가사 등이 일제히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기에 이른다.[37]

37) 분량이 과다하여 댓글 내용을 모두 옮기지는 못했음을 밝힌다. 139화의 댓글은 2023년 5월 22일에 확인하였다.

5. 〈공감.jpg〉와 〈돼지만화〉: 독자들의 비난과 '베스트 댓글 없애기'

반면 〈공감.jpg〉와 〈돼지만화〉은 1화부터 비판적인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며 독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반복・강화되는 양상을 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작가의 데뷔 자체에 대한 비판 역시 강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작가의 네이버 데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두 작품의 작가가 다른 웹툰 지망생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분노로 이어졌으며, 이는 작품의 소박한 작화나 내용에 관한 비판과 결합한다. 수준 낮은 작품을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웹툰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의 뒤에 숨어 비판을 회피하고 네이버 웹툰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여겨지는 작가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공정의 감각에 기반한 이러한 분노는 독자들에게 이후 작품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지속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했다.

〈공감.jpg〉의 작품 게시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작가의 반응 및 입장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작가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하는 베스트 댓글들이 유독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작가명 '임총'을 닉으로 한 베스트 댓글은 총 16개였으며, 댓글의 내용 역시 대부분 연재 종료 의사를 밝히는 단문 형식이었다("연재종료합니다. 이때까지 사랑해주신 독자분들 감사합니다.").[38] 댓글 반응에 응답하지 않는 작가를 비꼬는 동시에, 독자들이 바라는 바는 연재종료뿐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다. 〈공감.jpg〉 23화의 다음과 같은 베스트 댓글은 작가의 무반응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을 분명히 드러낸다.

> heej**** (2017.01.02. 23:55, 추천:5422, 비추천:709)
>
> 임총 작가의 말 모음집1화: 진짜진짜 반가워요 *서비스 운영자: 작가 및 타인을 사칭한 댓글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2화 : *서비스 운영자: 작가 및 타인을 사칭한 댓글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3화: *서비스 운영자: 작가 및 타인을 사칭한 댓글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4화: . 5화: . 6화: . 7화: . 8화: . 9화: . 10화: .

38) 〈공감.jpg〉 22화의 베스트 댓글. (닉네임:임총, 2016.12.30 11:27, 추천:47398, 비추천:3765)

11화: . 12화: . 13화: . 14화: . 15화: . 16화: . 17화: . 18화: . 19화: . 20화: . 21화: . 22화: . 23화: . 작가의 말도 발전이 없네요 이 웹툰 처럼 (23화)

물론 작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독자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연재를 시작한 작품의 연재 종료 및 사실 규명'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39] 문제는 플랫폼에서도 작가를 보호하고 독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차가 지날수록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었음에도 플랫폼은 이와 같은 댓글 게시판의 상황을 사실상 방치했다. 데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플랫폼은 독자의 개별적 문의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만 대응했으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댓글 게시판의 불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댓글 게시판에서는 작품의 스토리와 작화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이 작가의 자격에 대한 의문과 결합하여 토로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예컨대 다른 독자의 댓글을 재비판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아래의 댓글은 계속해서 웹툰 작가로서의 '자격' 여부에 주목한다. 설령 데뷔 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공감,jpg〉의 작가는 웹툰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실력과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jungseohan (2016.12.10. 00:11, 추천:2664, 비추천:541)

하느님 제가 반박해볼게요 솔직히 임총님은 그림체좀 바꾸셔야 합니다 그림자, 음영도 없고 심지어는 그리기 쉬운 머리와 얼굴로 매번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도 없습니다 (…) 임총님이 가지고 계시는 직업은 웹툰작가입니다. 그만큼 하루종일

39) 아울러 〈공감.jpg〉의 댓글 게시판에서는 임총 작가가 작품 초반 회차의 댓글 게시판에 직접 참여하여 독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댓글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다만 이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기에 신빙성이 높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사칭 계정의 활동일 뿐이라는 다른 독자들의 반박이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혹'은 작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작가의 '공식적인' 응답을 요구하거나 작가의 반응인 척 꾸며 조롱하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직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은 합니다) 이걸 그린다면 하루만에 다 그릴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 네이버에서 해명을 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량을 늘리거나, 매일 연재하거나, 음영이나 그림자를 넣거나 제발 좀 성의가 보이게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6화)

그리고 〈돼지만화〉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돼지만화〉 50화까지의 베스트 댓글 735개 중, 작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호오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며 감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댓글은 71개에 불과하다. 71개의 베스트 댓글도 대부분 초반부 1~7화의 댓글 게시판에 작성된 것이며(39개), 이후 50화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중립적인 댓글은 매우 드물게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을 뿐이다.[40] 이는 초반부 1, 2화 이후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베스트 댓글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던 독자들의 태도 또한 부정적으로 변화하거나 작품의 댓글 게시판 참여를 아예 그만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감,jpg〉에서 볼 수 있었던 댓글처럼 다른 독자들을 설득하거나,[41] 혹은 다른 '베댓'을 읽고 작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댓글들이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이다.

> 따끈따끈 (2019.5,18. 01:33, 추천:2911, 비추천:210)
>
> 작가 그림 너무 실력없거나 성의없이 그리긴했다 베댓설명 보니까 보임. 선 불규칙하고 단색에 휙휙그린 느낌임. 블로그에 만화일기로 올라올게 네이버 웹툰 최상단에 있는 느낌이긴 하네. (2화)

〈돼지만화〉의 경우 작가의 데뷔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전체 베스트 댓글에서

40) 이 글에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명확한 비난・비판・조롱이 이루어지거나 혐오감이 표현되는 경우 부정적인 댓글로 판단했으며, 작가와 작품을 칭찬하거나 컷 및 서사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응답하거나 감상평을 게재하는 경우 긍정적・중립적 댓글로 판단했다.

41) 예컨대 6화의 한 베스트 댓글은 〈돼지만화〉와 〈대학일기〉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다른 독자에게 작화(스케치/배경/채색/디테일)와 소재, 분량의 측면에서 모두 대학일기가 앞선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다른 독자들에게 공유한다. (with****, 2019.5.28. 01:02, 추천:1560, 비추천:78)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공감.jpg〉만큼 크지는 않으나, 특히 연재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작품에 대한 다른 독자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댓글 게시판에서는 이처럼 수준 미달인 작품이 연재되는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 혹은 이 웹툰이 정말로 수준 미달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주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드물게 작품에 대해 긍정적/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베스트 댓글조차, 초반부 이후에는 작품 자체의 감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댓글의 '지나친' 태도를 부분적으로 반박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출된다.[42]

아울러 컷툰의 특성상 다수의 베스트 댓글은 해당 컷의 스토리 혹은 작화를 짧게 비난・비판하거나 컷의 내용 및 대사를 희화화하며 주인공 캐릭터와 작가를 직접적으로 조롱하는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작품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글과 그림을 댓글로 게시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댓글을 추천해 달라고 다른 독자에게 부탁하는 등[43] 작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한다. 다만 웹툰에 긍정적인 다른 독자 혹은 작가를 직접적인 수신자로 상정하고 작성된 소수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다른 웹툰들의 '정리' 댓글과 마찬가지로) 작품을 비판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게시되는 경향이 있다. 비판의 이유가 간략한 경우에는 대신 자신이 어떤 정체성과 관점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을 비판하는가에 대한 서술이 상세하게 이루어진다.

> 안잘려니 졸려지 (2019.08.22. 01:09, 추천:588 비추천:58)
>
> 작가님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연종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목표로하는 초6 학생입니다.부족하지만 반에서는 그림 잘 그리는편인데 제가 동영상보고 인체구도, 명암,옷 주름 공부할때 작가님 뭐하셨는지 궁금합니다.저 정말 이 만화보면서 내가 한 노력은 뭐지..싶었습니다..저는 아직 다른 작가님들에비해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42) 이와 같은 댓글들은 대부분 댓글의 처음과 끝에 '나도 작가나 작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고 작성되며, 독자들의 지나친 비판도 문제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43) 자신의 생일 혹은 기념일이므로 추천을 눌러달라고 부탁하거나, 여기에 오면 '베댓'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댓글 등이 대표적이다.

> 실력이지만 베도작가님들을 위해 길을 비켜주심이 어떨지 조심히 부탁드려봅니다. 작가님..정말 제가 그림그리기 시작했을때부터 그림관련직종꿈 꾸면서 일러스트 그리고,웹툰그리는상상을 했습니다..정말..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아직어린꿈들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40화)

다른 독자 및 작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문의 댓글들에서 작가를 향한 직접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댓글들이 작품에 긍정적·중립적인 독자들의 댓글 게시판 참여를 줄이고, 작품에 부정적인 독자들에게는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부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작가를 향한 과도한 비판조차, 독자의 입장을 빠르게 수용하여 작품의 수준을 높이거나 연재 종료를 선택하지 않은 작가가 자초한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솔직히 비판적인 댓글도 여러 번 나왔었음 / 기회는 충분히 많았었는데 / 바뀌는게 없으니까 댓글러들도 포기하고 이러는 거지"(38화)[44]라는 베스트 댓글은 이러한 게시판 전반의 분위기를 알려준다.

이처럼 〈돼지만화〉에서도 독자들은 작가가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하지만 〈공감.jpg〉와 마찬가지로 데뷔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부터 서사와 작화 수준 전반을 높이고 분량을 늘리거나 연재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불만이 연재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작가가 독자의 지적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돼지만화〉의 작가는 10화까지는 '작가의 말'을 통해 꾸준히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독자들의 댓글을 참고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독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심해지면서 작가의 말 작성을 거의 중단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이 공고하게 형성된 다음에는 오히려 작가가 독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에서조차 독자들이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작화의 수준을 높이라는 요구에 작가가 보다 정성을 들여 그린 그림을 통해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자기도 이정돈 그릴줄 안다는걸 알리고 싶은건가.. (…) 뭐 실력 숨기고 있는척이나 은근 잘 그린다고

44) 버섯, 2019.08.17. 00:14, 추천:963, 비추천:60.

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 잘 그리는거 같지도 않은데…”(26화)[45]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이는 연재 종료를 제외한 작가의 어떤 행동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독자의 의도를 노출한다.

이처럼 〈공감.JPG〉와 〈돼지만화〉에서는 독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적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중반부 이후 두 웹툰의 독자들은 ‘댓글 없애기 운동’을 시작하기에 이른다.[46]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어떤 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누구도 댓글을 달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실질적인 독자들의 단체 행동은 댓글 달기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유’하는 한편 ‘비추천’을 통해 어떤 댓글도 베스트 댓글이 되는 걸 막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추천 비율이 높으면 베스트 댓글이 되지 못하는 댓글 게시판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두 작품 모두 5-60화 이후부터는 한동안 베스트 댓글이 0개인 상태가 이어졌으며, 독자들은 새로운 베스트 댓글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지속시켜서 작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자 했다. 〈공감.jpg〉의 경우 ‘베댓 없애기’가 작품의 완결까지 지속되지는 못했으나, 〈돼지만화〉는 결국 작가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재 중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댓 없애기 운동이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47] 〈돼지만화〉는 상호작용을 극대화한 형식인 컷툰으로 연재되었기에, 이와 같은 상호작용 자체에 대한 거부와 훼방이 작품에 더

45) 치킨, 2019.07.12. 23:23, 추천:2341, 비추천:168.

46) 〈공감.jpg〉의 58화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다. “님들아 담주에 다같이 댓글 올리지말아봐요 임총 반응좀 봅시다” (별똥별, 2017.05.05. 23:27, 추천:21248, 비추천:1117) 그리고 〈돼지만화〉 49화의; 베스트 댓글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드디어 노댓글운동이 시작 되기 전화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주의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1노댓글운동의 홍보는 이번화 까지입니다./ 2 이 운동으로 완전히 없애는것은 작가가 부계를 파든 할것 같으므로 불가능하니 최대한 댓글을 줄이는것을 목표로 합시다./3 노댓글운동이 시작되면 그 이후로 비판이든 지적이든 무시하고 댓을 달지 맙시다/여러분의 한 무플이 돼지만화 연종을 앞당깁니다./50화 노댓! 50화 노댓!” (지나가는 개, 2019.09.11. 23:28, 추천 2040, 비추천:215)

47) 〈돼지만화〉는 73화가 게재된 2019년 11월 6일 이후 오랜 시간 작품 연재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2년 6월 30일 74화부터 100화까지의 내용이 일제히 업로드된 다음 연재가 종료되었다. 이전 연재분과 달리 74화에서 100화까지의 회차는 유료 결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형태로 게시되었다. (완결된 현재는 이전 회차도 10화까지만 무료로 볼 수 있다.)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웹툰・웹소설 플랫폼에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독자의 댓글은 댓글 게시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며 웹서사 전반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댓글들은 작가와 독자 간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불화와 갈등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확산되기도 한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갈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 중 하나가 네이버 별점 하위권 웹툰의 댓글 게시판이다. 무료로 공개되는 작품이 많은 웹툰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해, 화제성만 있다면 낮은 평가를 받는 작품에도 독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네이버 별점 하위권 웹툰 10편의 베스트 댓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웹툰 독자가 형성하는 작가・서사・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표현과 인식을 검토하였다. 다른 웹툰・웹소설과 비교했을 때 별점 하위권 웹툰에서는 독자가 작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넘어, 비평의 기준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댓글 게시판 내외에서 공론을 형성하여 작품에 대해 개입하려는 시도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는 작가 혹은 플랫폼과 '정상적'인 소통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느낀 독자가, 자신들의 불평을 체계화하거나 작가를 향해 벌이는 사이버불링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별점 하위권 웹툰에서는 웹서사의 독자가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읽고 서사를 분석하는가, 그리고 작가와 플랫폼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독자는 작가에게 작품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독자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요구한다. 독자는 베스트 댓글을 통해 작가・작품과 관련하여 ① 불투명해 보이는 데뷔 과정, ② 연재 분량의 부족과 잦은 휴재 및 지각, ③ 개연성과 핍진성을 결여한 서사, ④ 서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작화, ⑤ 잘못된 관람 등급 책정 등등을 문제시하며, 다시 작가에게 이러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 “적절히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작가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베스트 댓글을 통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반복·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축적된 불만은 다양한 양식의 조롱 및 인신공격과 결합되며, ‘베스트 댓글 없애기 운동’과 같은 집단적인 보이콧 운동의 조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독자에 대한 작가의 반응이다.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거나, 독자의 요구를 스토리와 작화에 반영함으로써 독자들의 요구에 간접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가 적절히 응답하는 데 성공했을 때, 작가·작품을 향한 독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작가의 소통 능력에 달렸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신인 작가인가 기성 작가인가에 따라 독자의 태도와 작가의 대응 방식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사실 많은 경우 독자에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작가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문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스트 댓글의 양상은 웹툰을 비롯한 현재 웹서사의 독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작가와 작품을 평가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이와 같은 독자의 비평 기준을 베스트 댓글이 말하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논리적인’ 베스트 댓글 역시 다양한 유형의 조롱과 사이버 불링을 증폭시키는, 혐오의 정동을 정당화하는 기제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평의 논리가 정교해지는 과정은 독자의 분노가 축적되는 과정과도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독자의 문예 담론에 대한 이후의 논의는 댓글 게시판 전반의 정동에 관한 분석과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공감.jpg〉 (임총, 네이버, 2016.10.17.-2017.10.27.)
〈돌아온 럭키짱〉 (김성모, 네이버, 2012.03.07.-2018.02.20.)
〈돼지만화〉 (돼지작가, 네이버, 2019.05.15.-2022.06.30.)
〈비스타〉 (유마, 네이버, 2020.04.21.-2021.01.12.)
〈신림/남/22〉 (글:박태준 만화회사, 그림:jaw, 네이버, 2021.11.19.-2022.05.10.)
〈심연의 하늘〉 시즌 4 (글:윤인완, 그림:김선희, 네이버, 2016.06.06.-2016.12.05.)
〈언플래시 레슨〉 (현, 2021.01.01.-2021.08.06.)
〈유비님께 투자하겠어〉 (글:B급달궁, 그림:이유정,사방팔방, 네이버, 2020.11.15.)
〈이웃집의 훈훈한 스토커군〉 (teamGOGI+, 네이버, 2020.11.09.)
〈줄라이 블루〉 (심건우, 네이버, 2021.05.31.)

2. 논문과 단행본

김건형, 「웹툰 플랫폼의 공동독서와 그 정치미학적 가능성」, 『대중서사연구』 22-3, 대중서사학회, 2016.
_____, 「일상툰의 서사 문법과 자기 재현이라는 전략—여성 일상툰의 정치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3, 대중서사학회, 2018.
김경애, 「한국 웹소설 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7,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김준현, 「웹소설의 댓글과 독자 주체성의 문제」, 『국제어문』 91, 국제어문학회, 2021.
김희원, 「웹소설에 나타나는 독자참여 연구 : 웹소설에 영향을 끼치는 독자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20.
문광수・김슬・오세진, 「베스트 댓글의 방향성이 일반댓글의 동조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한국콘텐츠학회, 2013.
서인숙, 「인터넷 소설의 독자 댓글 연구」,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오유선・조재희, 「컷툰의 장르에 따른 컷의 구성요소와 베스트 댓글 내용분석: 네이버 웹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2.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이재현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조경숙, 「댓글: 소통이라는 허상과 웹툰계 사이버불링」, 『황해문화』 107, 새얼문화재단, 2020.
최기숙, 「Daum 웹툰 〈바리공주〉를 통해 본 고전 기반 웹툰 콘텐츠의 다층적 대화 양상—서사 구조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3, 대중서사학회,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Best Comments of Low-rated Webtoons on Naver

Koo, Ja Jun*

One of the biggest changes in web-based narratives, such as webtoons and web novels, is the constant involvement of reader comments as readers flip screens or scroll up and down to read at their own pace. Best comments selected by readers lead the overall atmosphere of the comment section and form various discourses on web-based narratives. While such best comments can create productive interactions between authors and readers, they can also often spread unresolved conflicts and disputes. One of the best places to reveal these explosive moments of crisis is the comment section of the lowest-rated webtoons on Naver, a popular webtoon platform in Korea. Due to the nature of many free works provided during the serialization perio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readers will continue to enter even low-rated works that are still controversial. Readers constant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emotions through best comments, incessantly venting various grievances about the author, the work, and the platform.

This paper analyzes the best comments on 10 of the lowest-rated webtoons on Naver to examine the various expressions and perceptions that webtoon readers have about authors, narratives, and platforms. In contrast to other webtoons and web novels, readers of low-rated webtoons not only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about the work but also provide a detailed basis for criticism, forming a public discours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mment section in attempts to intervene in the work. This is because readers who feel that they have failed to communicate normally with the author or the platform often attempt to systematize their complaints or justify cyberbullying toward the author. Thus, the criteria that web-based narrative readers use to read and analyze the narratives, and what they expect from the author and platform, are clearly revealed in the lowest-rated webto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imply accept the logical best comments as they also function as a mechanism that amplifies various forms of ridicule and cyberbullying, justifying the emotional reactions of hatred.

Keywords: Webtoon, Naver Webtoon, star rating, best comments, comment section, interaction.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3.

* Instructor,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